

제22차 차(tea) 국제표준화 회의 결과

08.3.31~4.2일간 제22차 차(tea) 국제표준화 회의가 항저우(杭州) 시후(西湖)호반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ISO 농산품·식품기술위원회 산하 차분과기술위원회(ISO/TC34/SC8)에서 주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 주관했으며, 동 위원회 리우펑균(刘凤均) 수장이 개막식 연설을 하였다.

동 회의에는 중국, 영국, 독일, 스리랑카, 케냐, 아르헨티나, 일본 등지에서 온 50여명의 치전문가 및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중국대표단은 중화전국공급관매립농조합 항저우 차연구원, 국가차품질감감독사센터, 안후이(安徽)농업대학, 저장(浙江)대학, 중국차유통협회, 저장사오싱(浙江 湖州)출입국검사업역국, 중국농업과학원 항저우(杭州)차연구소, 저장성(浙江省)차그룹, 중국차주식회사, 쓰촨야안(四川 雅安)차공장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금번 회의 개최를 통해 중국차표준화업무가 세계와 접촉되고, 중국차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중화전국공급관매립농조합 항저우차연구원 루오샤오윈(刘少云) 명예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은 풍부하고 내실있는 자료와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각국 대표단에게 중국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3일간의 토론과 상호교류를 거쳐 각종 차 국제표준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기타 국가들이 제시한 백차를 녹차로 편입시키는 표준제의를 부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획득한 것은 중국 차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중국 차표준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출 처 | 중국국가표준화기관(SAC) 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정보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규격 신규제정

최근 ISO는 조직내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과정 및 실행방법에 대한 지침을 국제표준 ISO/IEC 27005:2008(정보보호 위험관리)으로 제정하여 발간하였다.

동 규격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정보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 및 조직들로 하여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조직 내 정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발생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 가지라고 꼽기 어렵다.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신원도용, 서비스 거부 공격(컴퓨터 공격의 일종)·스파이웨어·상비 또는 서류 절도 등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IT 시스템의 사용 및 응용 또는 IT의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연관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정보보호를 위협하는 요인들의 원인은 가지 다르지만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네트워크의 단절로 인해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차질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악영향을 입게 된다.

규격에 제정된 동 규격은 정보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컨텍스트(context) 설정
- 위험 평가
- 위험 처리
- 위험 수용
- 위험정보교환
- 위험 모니터링, 검토

이 규격을 보다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05년에 제정된 2종의 국제표준 ISO/IEC 27001:2005(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과 ISO/IEC 27002:2005(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실행지침)에 언급된 개념, 모델, 용어 등을 참조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의 범위나 산업분야에 따라 위험관리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게 될 개별조직의 실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동 규격은 ISO/IEC JTC1의 산하 기술위원회 SC37(정보기술 정보보호기법)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ISO 중앙사무국이나 ISO 국가회원기관을 통해 구매(154 스위스 프랑 = 155,000원) 가능하다.

출 처 | ISO 홈페이지
| 기술표준 20088

유모차 강제안전기준 도입

호주표준협회(SA)는 유모차에 대한 강제안전기준의 도입이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모들에게는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강제기준은 임의 표준인 호주/뉴질랜드 표준 2088, (유모차-안전요건)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7. 1일자로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새로운 유모차는 빨간색의 브레이크와 아이의 손목 묶는 끈을 강제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의 복색은 부모들이 브레이크 사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브레이크 장치를 보다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아이의 손목을 매는 끈이 안전장치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표준협회 회장인 Mr. John Tucker는 유모차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로운 표준은 이미 알려진 유모차의 위험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유아에게 관련된 상해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이 발효되는 7. 1일부터는 특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유모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상, 수입업자, 임차인, 소매상, 중고품 판매자를 포함한 유모차 공급자들은 강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

매년 호주에서는 약 74만개의 유모차가 판매되며, 호주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가격대는 단순한 유모차의 가격이 \$50 정도에서 최고급 유모차는 약 \$2,000까지 이르고 있다.

호주 공정거래법 1974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을시 벌칙은 회사의 경우 최고 110만 달러, 개인의 경우 최고 22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세부정보는 ACCC(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정보센터 1300 302 502로 연락하거나 www.accc.gov.au로 연락하기 바란다.

출 처 | SA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정보보안운영 신규규격 제정

모든 조직이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위해요소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부서의 역할 강화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보보안관리 절차 및 관련활동에 관한 새로운 규격 ISO/IEC 27005:2008(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위험관리)이 이러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보안 위협은 의도적이거나 우연적일 수 있으며, IT 시스템의 사용 또는 IT의 물리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인될 수 있다. 또한 아이디 도용, 전자문서 도난 등은 결과적으로 금전손실이나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보보안에 대한 위험 평가는 관리자가 심각성이나 기타 기준에 따라 위험 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신규 제정된 ISO/IEC 27005: 2008는 정보보안 위험관리 지침을 제공하며, ISO/IEC 27001: 2005(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 시스템-요건)에서 규정한 일반 개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동 규격은 ISO/IEC 27001 이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위험관리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다. ISO/IEC 27001의 개념, 모델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은 이 신규 국제규격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정보보안 위험관리 절차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내용
- 위험평가
- 위험처리
- 위험인지
- 위험통보
- 위험감시 및 검토

그러나 동 규격은 정보보안 위험관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위험관리 접근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각 기관의 특이로, 정보보안 관리시스템의 영역에 따라 그리고 산업별로 결정된다.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반의 컨비니언 Mr. Edward HUMPHREYS는 "오늘날 정보기술이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도래로 정보기술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ISO/IEC 27005:2008은 기관내의 정보보안 위험관리에 관련된 관리자 및 직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 처 | ISO 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항공기내 실내공기의 질에 관한 환경규격 제정 추진

미국 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격 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며, 다음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임의표준은 현재 주거 공간 및 상업적 건물 내에서 최적의 공기 질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계약자 및 건물관리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000피트 상공의 비행기 내에서 최적의 공기 질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미국항공조냉동공학회(ASHRA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가 개발한 미국 국가규격은 비행중 기내 실내공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ASHRAE : ANSI회원이사 ANSI가 승인한 표준개발기관으로, 연구와 표준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류와 세계를 위해 일하는 국제 조직.

ASHRAE 규격 161-2007(상업용 항공기 내의 실내공기)은 20명이상을 수용하는 상업용 여객기 내의 실내공기 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실내공기의 질 시험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동 규격은 온도, 습도, 기내 압력 및 환기와 같은 분쇄를 세기함으로써 항공기 내의 승객과 승무원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 규격은 기내의 실내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오염도 고려할 것이다.

출 처 | ANSI 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표준개발자를 위한 2008 오픈 포럼 개최 결과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008 표준개발자를 위한 오픈 포럼에는 다양한 표준기관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약 90여명이 참가하였다.

오픈 포럼은 「미국 및 해외에서 표준화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개최되어, 표준관련기관의 이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표준개발기관의 대표들과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정책개발자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ANSI 회장인 S. Joe Bhatia는 「표준개발기관들은 표준분야에서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첫날, 첫 번째 패널에서는 「상호협력력을 통한 경쟁(Cooperation)」을 주제로 활발한 토의를 하였다. 패널들은 표준개발기관간의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표준화활동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표준개발기관들

은 규격이 출판된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규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두 번째 패널은 소비자 및 표준이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신기술 도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ANSI 부회장인 George Gulla는 표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신기술을 제공하는 웨비나(Webinar)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웨비나(Webinar)란?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방식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스트리밍 오디오에 의한 보고, 스트리밍 비디오를 통한 보고자의 영상, 보고자 패널, 실시간처럼 질의 답변을 보여줄 대화 세션,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슬라이드, 보고자와 청중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이트보드, 청중이 보고자에게 말할 수 있는 마이크와 PC 카메라, 보고자와의 회의 진화 등으로 구성된다. 「Webcast」라고도 한다.

미국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표준과장인 Mary Saunders는 「표준과 공공 정책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Saunders는 민간 자율표준이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공 정책과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 농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활발한 표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자율표준 개발이 늘어나는 만큼 표준개발자들에 대한 미국 표준화시스템 교육의 필요성과 공공과 민간분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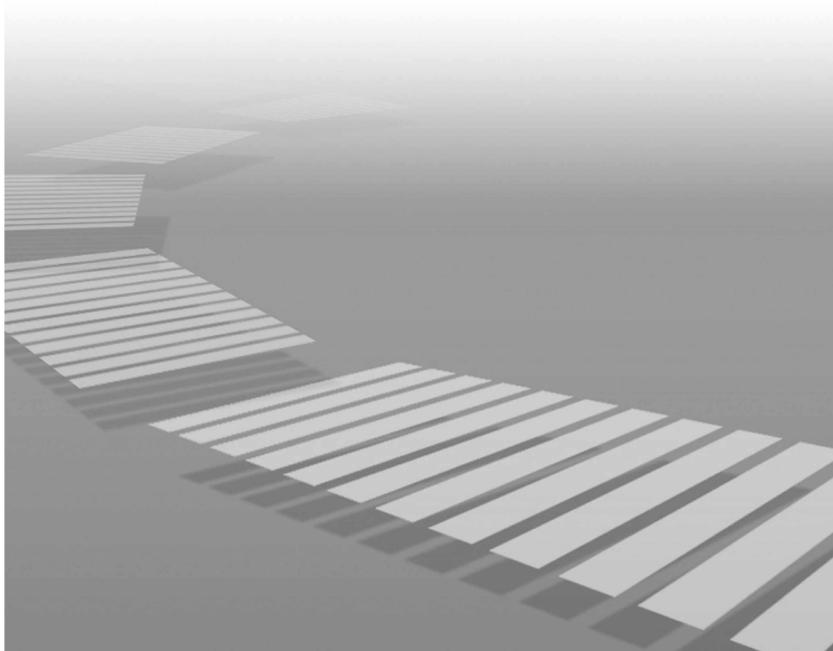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패넬은 「신산업분야 트렌드」였으며,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표준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패넬들은 신산업에 대한 민간자율표준 개발은 표준개발자들이 표준화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우수하게」라는 주제로 어떻게 표준화활동 및 서비스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과 표준개발기관들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출 처 | ANSI 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가정용 스프링클러 설비표준 마련

배관공이 가정에 자동 화재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호주 신규표준이 발간된 이후, 가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가격은 최고 \$4,000까지 떨어졌다.

이 새로운 호주표준은 빈허증이 있는 배관공이 가정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정용 급수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

새로운 표준 AS 2118.5-2008을 이용하면, 새 집에 가정용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00에서 \$1,500 정도로 절감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가정용 소화관과 결합시킴으로써, 건축업자와 주택소유자는 절반이하의 비용만으로도 통합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인명손실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자동 화재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가정화재발 동제함으로써 평균 재산손실액을 2/3나 감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표준기관(SA)의 CEO인 Mr. John Tucker는 통표준에 의거하여 설치된 가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세계적으로 상업적 건물에 10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설치되어 왔습니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인명구조기술은 가정에서도 이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예방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신규표준은 가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모든 가정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불길을 탐지해내며 통제하고 진화합니다. 이것은 작은 불편으로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10,000건 내외의 가정화재가 발생하여 1,500명 이상의 상해자와 7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다. 가정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호주에서는 흔하지 않은 반면, 미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가정용 화재 스프링클러 관련규정을 제정하였다.

화재 및 긴급사태 서비스 산업기관이며, 농 표준을 제안한 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이 동 표준을 후원하고 있으며, 표준개발 작업에 참여한 화재예방엔지니어 Mr. Barry Lee는 호주 가정에 저렴한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Australasian Fire Authorities Council : 1993년에 설립된 호주 및 아시아지역 화재 및 긴급사태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이 표준은 가정용 급수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고 가정에서의 상해와 참사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표준은 전통식, 산업식 형태

의 스프링클러의 단점인 우발적인 작동과 실내 장식 등 미적인 문제로 인한 값비싼 설치비용, 수재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스프링클러와 가정용 급수서비스를 결합한 것이므로 환경친화적이며, 수자원 보진을 촉진합니다. 이 새롭고 혁신적인 설계는 호주표준기관(SA)이 훈련과 교육을 받아 시스템 설치능력을 갖춘 배관공과 함께 숙고한 끝에 개발하였으며 최종사용자의 추가설치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라고 Mr. Lee는 밝혔다.

한편, 동 표준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춘 가정은 연기경보장치도 함께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 처 | SA 홈페이지
| 기술표준20088

